



글로벌 자본시장 동향

2024년 2월 1호

이슈 분석

'24년 글로벌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현황
김해성 부연구위원

주요 기사 리스트



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

부연구위원
김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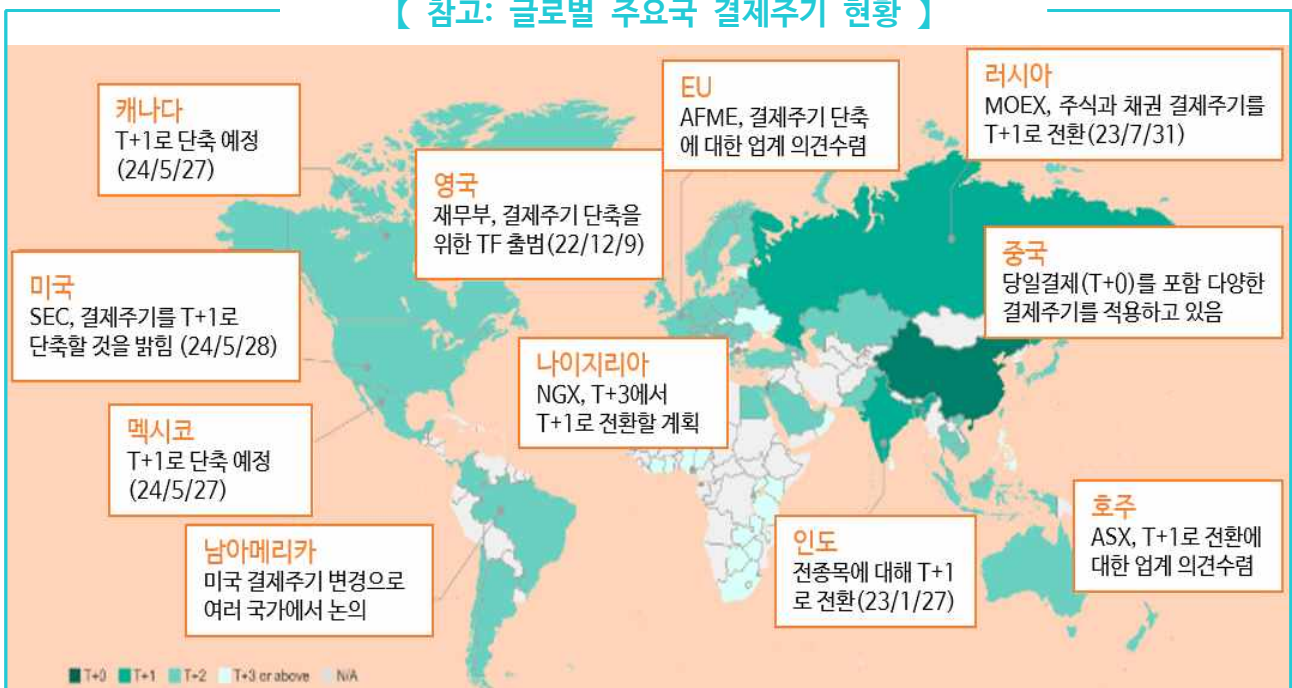
'24년 글로벌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현황

- ◆ 팬데믹 이후 미국, EU 등 주요 자본시장에서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글로벌 시가총액 44.9%('23.3분기 SIFMA 추정 기준)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년 5/28일부터 결제일을 축소(T+2 → T+1)
 - 앞서 '17.9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존 T+3일 결제를 유럽 및 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함께 T+2일 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증거금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둠
 - 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증권예탁결제원(DTCC)은 주식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
 - * DTCC, 2018. 「Modernizing the U.S Equity Markets Post-Trade Infrastructure」
 - '21년 게임스톱 사태로 DTCC가 증권사에 증거금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 결제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논의 재점화
- ◆ 현재 탈달러화(de-dollarization) 움직임을 주도하는 브릭스(BRICS) 주요 국가인 중국, 인도, 러시아만 T+1 결제주기를 선제적으로 시행
 - * 중국 주식시장은 이미 T+0/T+1일 결제주기를 운영하고 있음
 - 높은 경제성장률과 개인투자자 거래량 확대의 이점을 갖는 인도는 결제주기 단축 시 외국인 투자자 비중 축소에 대한 해외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T+1일로 결제주기를 안착
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와 유로의 거래(T+2 결제주기 시행국의 통화)가 줄고 그 대체재로 위안화 거래(T+1 결제주기 시행국의 통화)가 늘어나면서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
- ◆ 반면, 미국과 같은 시기에 제도 시행을 앞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결제주기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

1) 글로벌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현황

- 다수 글로벌 거래소는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T+1로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시장도 존재
 - 인도, 러시아 등 시장은 '23.1월, '23.7월 각각 T+1로의 전환을 완료하였으며,
 - 미국은 '22년부터 T+1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5월 T+1로의 전환이 예정
 - 멕시코, 캐나다 등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장은 미국의 도입 시기에 맞춰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
 - 유럽, 영국, 호주는 결제주기 단축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중

【 참고: 글로벌 주요국 결제주기 현황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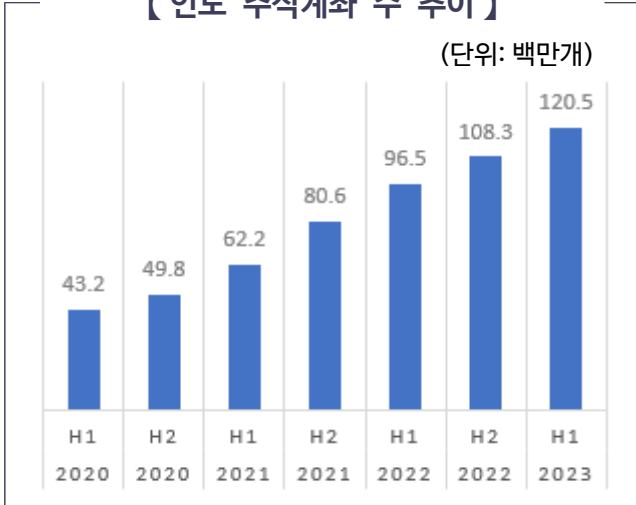


* 자료: Deutsche Bank의 '23.10월 공개자료 「Travelling together in securities」를 인용

2 결재주기 단축 완료 시장

- [인도] 인도 주식시장은 '22.2월부터 일평균 거래량 기준 하위 100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'23.1월 쏘 종목에 대해 T+1로의 결재주기 단축을 적용
 - '21.9월 결재주기 단축을 시장에 제안한 인도증권거래위원회(SEBI)는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비판에 직면함
 -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(ASIFMA)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도 T+1로 급격한 결재주기 전환은 결재실패 리스크를 높이는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으며,
 - 사전 준비금 확보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어 인도 자본시장에서 해외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
 - 그럼에도 인도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량 급증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인도 증권업계는 SEBI의 결재주기 단축에 지지를 보냄
 - 인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'20년 상반기 4,320만 개였던 금융거래용 주식계좌(demat account)가 '23년 상반기 1억 2천만 개로 약 280% 증가
 - 인도국립증권거래소(NSE) 주식거래 중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도 4~5% 확대됨
 - 3교대 근무 도입 등 인도 증권업계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도 주식시장의 결재주기 단축(T+2→T+1)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음
 - 이에 힘입어, SEBI는 '23.12월 기존 결재주기(T+1)에 더해 선택적 당일결제(T+0) 및 즉시결제 도입으로 결재주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협의문서(consultation paper)를 발표
 - 협의문서에 따르면 SEBI는 인도 주식시장에서 당일결제와 즉시결제를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할 것을 제안
 - * Reuters에 따르면 SEBI의 Madhabi Puri Buch 의장은 뉴델리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'24.3월 전에 당일결제를 시행하고 그로부터 1년 후 즉시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1단계는 당일결제로 오후 1시 30분까지의 거래에 대한 자금 및 증권 결제를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며, 이후 2단계에서는 선택적으로 오후 3시 30분까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자금 및 증권을 즉시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
 - 당일결제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개 상장기업이며 그중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200개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

【 인도 주식거래 수 추이 】



* 자료: CDSL, NSDL

【 NSE 투자자별 주식 거래 비중 】



* 자료: NSE

■ [러시아] MOEX도 '23.7월 주식과 채권 거래에 T+1로의 동일 결제주기를 적용

- MOEX는 이전부터 루블화 표시된 연방채권(OFZ)과 회사채에 관한 결제주기 뿐만 아니라 통화 및 단기 금융 시장에서도 주요결제 주기를 T+1로 적용하고 있었으며,
- 결제주기를 통일하면서 주식선물과 외화로 표시된 주식·채권도 T+1로 전환
- MOEX의 Yuri Denisov 대표는 '23.5월 NAUFOR 컨퍼런스에서 이번 T+1 결제 전환이 거래시간 비용을 줄이고 통화시장과 증권 결제를 동기화하여 MOEX의 유동성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할 수 있을 거라 밝힘

③ 결제주기 단축 준비 및 검토 시장

■ [미국] 미국 증권의 결제 주기를 거래일 이후 영업일 기준 1일로 단축(T+2→T+1)하는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규칙변경 사항이 금년 5/28일부터 적용

- '21년 밈 주식(meme stock)에 따른 시장 변동성 폭등으로 증권사에 요구되는 증거금 요구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
 - 이에, 미국 증권예탁결제원(DTCC)는 백서를 통해 이러한 시장 이벤트에서 증권사의 증거금을 완화하고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을 밝힘
 - * DTCC는 T+1로 결제주기 단축으로 결제불이행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증거금(일평균 134억 달러 이상, 2020년 기준)을 41%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
- '22.2월 SEC는 결제주기를 기존 T+2에서 T+1로 단축을 위한 규칙변경을 제안하고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

- **[유럽]** 미국과 달리, 유럽은 단일 법률체계 및 거래 후 인프라가 없어 T+1 전환을 위한 협의과정이 보다 복잡
 - T2S(Target2-Securities)가 유럽 20개국의 증권, 현금 전송 공통 플랫폼을 제공하며, 단축 결제주기를 지원 가능하나
 - 다양한 시장에 수많은 규정, 운영상 차이가 존재하고 다수 CCP, CDS로 인해 거래, 청산, 결제환경이 분절
 - 유럽증권시장감독청(ESMA)는 '23.10월부터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(Call for evidence on shortening the settlement cycle) 과정을 진행
 - 이에, 유럽자산운용협회(EFAMA)와 미국자산운용협회(ICI)는 유럽이 결제주기 단축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북미 시장과의 불일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
 - 반면, 유럽금융시장협회(AFME)는 서한을 통해 유럽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청산소로 인해 복잡성이 높은 환경으로 즉각적인 제도 도입에 반대
 - 룩셈부르크 펀드산업협회(Aifi)도 대형 자산운용사에 비해 소규모 자산운용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으며 EFAMA는 이로 인한 자산관리업계의 통합을 전망
- **[영국]** 재무부는 '22년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'24.12월 업계와 합의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
 - TF 의장인 Charlie Geffen은 지난해 말 서한을 통해 영국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현재 그 단축 시기를 두고 미국과 EU 양대 시장 중 어느 곳을 따를지 합의 중이라고 밝힘

④ 종합의견

- **[전환 동인]** 글로벌 주식시장은 시장안정성 제고, 시장참가자의 요구, 국제정합성 제고 등 각기 다른 동인에 따라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
 - 미국의 경우, 유동성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
 - CoViD19 발발 이후 시장변동성 확대와 밌 주식 거래급증 및 관련 거래제한으로 인한 시장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를 촉발
 - 결제주기 단축을 통해 증거금요건 및 경기순응성 완화, 결제불이행 리스크 축소효과를 기대

- 인도의 경우, CoViD19 발발 이후 크게 증가한 개인투자자의 결제주기 단축 요구가 T+1 전환에 크게 기여
 - CoViD19 발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함에 따라 거래자금과 증권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제주기 단축을 요구
 - 최근 IT 및 인프라 발전으로 인한 STP(Straight Through Processing) 시스템 구축도 T+1 전환에 일익
- 시장간의 연계도 결제주기 단축의 주요 동인으로 캐나다, 멕시코 등 시장은 미국과의 밀접한 연계로 인해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으며,
 - 유럽의 경우 미국시장과의 상호연관성 및 유럽 연합의 통일된 결제표준 구축을 위해 결제주기 단축을 검토중
- **[시사점]** 극단적 시장충격과 변동성이 단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합성의 잠재적 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나,
 - T+1로의 전환 결정은 규제 및 시장의 준비정도, 특히 시장참가자와 CCP, CSD 등 시장 인프라제공자의 기술적, 운영적 발전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함
 - 무엇보다 결제주기 단축이 기존 프로세스, 제반기술, 자금조달 등 운영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이해가 중요하며,
 - 금투업, 투자자, 협회, 시장인프라 제공업체, 다양한 시스템 공급업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거래 결제주기 단축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긴밀한 협조가 필요
 - 특히 결제주기 단축은 자본효율성, 유동성 개선 및 비용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지만 거래당일 수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를 증가시켜* 결제실패 리스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,
 - * AFME에 따르면 결제주기의 T+1로 1/2 단축은 거래 종료 후 결제 시작까지 12시간을 2시간(83%)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
 - 거래 후 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시간대 및 지역에 걸쳐 거래하는 투자자의 증권 결제, 주식 대여 및 차입 관련 운영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장안정성 제고로 연결되기 위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

[주요 기사 리스트]

1월 1주 ~ 1월 4주

주식, 증권상품

-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美 증시가 상승하면서 S&P 500 지수 최고치 근접(Reuters, 12/28)
- 英 증시의 저조한 실적과 물가상승으로 런던 증시에서 이탈 중(Financial Times, 12/29)
- Nasdaq, 5년 연속 IPO 경쟁에서 NYSE보다 우위 차지(WSJ, 12/29)
- 美 증시는 10년간 지속해서 상승장을 보였으나, 최근 가치 평가의 벽에 부딪히고 있어(Bloomberg, 12/30)
- 캐나다의 IPO 시장은 23년에는 크게 저조했으나, 안정된 시장 및 투자자의 신뢰 상승으로 24년에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(The Globe and Mail, 1/2)
- S&P500 주식가치 재평가: 저평가된 주식 찾기 어려워(Financial Times, 1/10)
- 2023년 이후 상장한 기업 주가가 S&P500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며 IPO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고조(Financial Times, 1/10)
- 미국 및 캐나다 주식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(Bloomberg, 1/5)
- 日 도쿄 증시의 대부분 기업이 자본 효율성 개선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(Financial Times, 1/15)
- 美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락하고 지진으로 인해 초저금리 정책 종료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, 日 증시는 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(Financial Times, 1/13)

- 中 규제당국,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창구 규제 실시(Financial Times, 1/16)
- 유럽 자산운용사, 결제 주기를 T+1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유럽 자본시장이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(Financial Times, 1/15)
- 금속 가격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가 압박과 캐나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캐나다의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(Reuters, 1/17)
- 아태 지역에서 ETF 시장 크게 성장(Financial Times, 1/19)
- 英 주식 시장은 상장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20년 동안 유동성 하락 중(Financial Times, 1/23)
- 중국발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면서 中 주식 시장에서의 해외 투자자 매도 가속화(Financial Times, 1/19)
- 중국 본토, 홍콩에 이중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격차 역대 최대치 기록, 중국에 대한 비관론 시사(Bloomberg, 1/22)
- PBOC의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로 홍콩 및 중국 본토 증시 반등(Reuters, 1/24)
- S&P 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연착륙 기대로 상승했으나,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상승세 둔화(Financial Times, 1/20)

파생상품

- 월가의 QIS팀은 저비용 고유동성 수단이라는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ODTE 옵션 채택 증가(Bloomberg, 12/27)
- EEX, 지역 간 차익거래를 제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유럽 지역의 전력 선물 거래 개시 예정(FOW, 1/9)

-
- 美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예상에 따라 일부 금융기업은 금리 스왑 축소(Risk, 1/4)
 - Citi, 23년 3분기에 대규모 SOFR 거래로 美 뮤추얼 펀드 및 ETF에 대한 스왑션 거래량 급증(Risk, 1/11)
 - Cboe, 소형주 지수인 Russell 2000에 대한 ODTE 옵션 예정(FOW, 1/12)
 - 미국 및 신흥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환헤지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, 기업은 외환 옵션을 헤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어(Risk, 1/16)
 - 日 YCC 정책의 축소 예상으로 인해 LCH와 JSCC간 엔 금리 스왑 베이스스가 마이너스로 전환(Risk, 1/11)
 - MCX, 인도 최초로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에 대한 선물 계약 출시(FOW, 1/15)
 - CME, 첫 배당옵션 출시에 이어 분기별 배당선물 출시 고려 중(FOW, 1/15)
 - IOSCO, 비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시 및 추가증거금에 대해 개혁할 것(FOW, 1/17)
 - S&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옵션 거래 증가(Bloomberg, 1/22)
 - FIA, 아시아에서의 주식 옵션 거래가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 거래량 견인(FOW, 1/19)

가상자산, 디지털

- SEC,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(WSJ, 12/28)
-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옵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 기록(Bloomberg, 12/29)
- Cboe Digital,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할 것으로 예상(BNN Bloomberg, 1/2)

- CFTC, 탈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정부 및 업계의 이해도 증가 및 규제 준수 강조(THE BLOCK, 1/8)
- 기관의 시장 참여 증가로 디지털자산 거래량 급증(FOW, 1/4)
- BOE, 규제 비대칭 해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발전할 수 있을 것(Risk, 1/8)
-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다다르면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급증(Reuters, 1/10)
- 유럽의 암호화폐 관계자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,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 참여 촉진 기대(FOW, 1/11)
- 자산운용사,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레버리지펀드 등 타 상품으로 경쟁적 확장(Financial Times, 1/18)
-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비트코인 가격 15% 하락(Financial Times, 1/24)
- 비트코인 ETF 출시 후 거래량 증가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(Bloomberg, 1/24)

청산·결제

- 비엔나 증권거래소,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지속 및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유럽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채권 시장에서 기록을 세워(Mondo Visione, 12/29)
- Abaxx Exchange, 처음으로 거래 가능한 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거래소의 시장 데이터 처리에 대해 잠재적인 경쟁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발표해(FOW, 1/2)
- Euronext, 23년 한 해동안 유럽의 주식 및 채권 상장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인(Mondo Visione, 12/29)

- Clear Street, 24년 상반기에 미국 및 영국에 선물거래 청산업체 출범 계획(FOW, 1/5)
- SGX, 외환 및 상품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을 보였으나 지수 파생상품 거래량은 감소(FOW, 1/12)
- ESTR 시장에서 Eurex는 거래량 기준으로, CME는 미결제약정 기준으로 선두 차지(FOW, 1/10)
- CME와 FICC간의 교차마진 계약 확대는 청산에 대한 유동성 압력 완화 및 일부 고객에게 높은 마진 절감 기회를 제공하나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(Risk, 1/15)
- BIS, CCP의 개시증거금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정책 변경을 제안할 것(FOW, 1/16)

지수

- CME, 많이 거래되는 단기 주가 지수 계약에 힘입어 장기 계약을 출시할 예정(FOW, 1/9)
- FTSE 100 지수는 예전만큼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, 새로운 전략과 변화가 필요해(Financial Times, 1/4)
- 中, 외국인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, 반도체 등 성장산업 주요 50개 기업을 담은 CSI A50 지수 출시(Financial Times, 1/5)
- 사우디 거래소, 시총 상위 50개 상장기업 참조 지수(TASI50지수) 출시(FOW, 1/8)

ESG

- 높은 금리와 ESG 규제 강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23년도 ESG 채권 발행이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24년에도 성장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(Bloomberg, 12/28)
- 금융 업계는 새로운 ESG 규제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, 규제 준수를 위해 확실성 요구(WSJ, 12/27)
- SEC의 새로운 ESG 규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(Bloomberg, 12/29)
- 미국의 새로운 기후 위험 규제로 인해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이견 예상(Risk, 1/8)
- ASIC, 그린워싱 펀드에 대한 단속 강화 예정(Financial Times, 1/7)
- ESG 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, 저조한 성과 등으로 인해 ESG펀드 출시 급감(Financial Times, 1/10)
- Eurex, 처음으로 SRI 지수 선물 출시해 ESG 파생상품 제품군 확대 예정(FOW, 1/18)
- 성과 부진, 정치적 이슈 등을 이유로 23년에 처음으로 美 ESG 펀드 자금 유출(Pensions & Investments, 1/19)
- Euronext, 유럽의 ESG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ESG 선물의 수요를 제한한다고 말해(FOW, 1/22)

글로벌 시장

- 투자자가 금리 하락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고수익채권 불이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기대(Reuters, 1/3)
- 美 기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환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(Financial Times, 1/3)

- EBA,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과 비은행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 조사 계획을 발표해(Financial Times, 1/3)
- 신흥국에서의 차입비용이 하락하면서, 신흥시장 채권 발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(Financial Times, 1/10)
- 中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악화와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(WSJ, 1/12)
- 폴란드는 Wibor를 대체하기 위해 Wiron를 도입하려고 하나, 데이터 오류와 시장에서의 저항으로 전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(Risk, 1/15)
- FIA, 美 G-SIB이 새로운 자본 규제에 따라 파생상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80% 추가 자본을 마련해야할 것(FOW, 1/16)
- ECB,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했음에도 시장의 과도한 낙관으로 이자율을 조기에 낮추기에 이르다고 주장(Financial Times, 1/16)
- 中 리창 총리, 침체된 중국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효과적 조치 촉구(Bloomberg, 1/22)
- 이탈리아, 포르투갈 등 국가의 부채비율 감소로 유로존 '안전채권'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져(Financial Times, 1/24)
- AI 전문가,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의 시장 조작에 대해 경고(Risk, 1/24)

글로벌 규제

- 美 자산운용사, SEC의 새로운 유동성 요건과 가격 결정방식 강화에 대한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(Financial Times, 12/29)

- ESMA의 의장,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도 레버리지 및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경고(Financial Times, 12/31)
- 중국의 '국가대표' 기관이 시장 안정화 및 신뢰 강화를 위해 ETF를 통해 주식 시장에 개입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(Financial Times, 1/2)
- SEC의 미 국채 중앙청산 규제로 단기자금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(Financial Times, 1/8)
- 中 규제당국, 펀드 환매 압력 증가에 따라 뮤추얼펀드의 주식 매도 제한 철회(Reuters, 1/9)
- CFTC 위원, AI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촉구(FOW, 1/9)
- WFE, 미국 외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CFTC의 규제 변경으로 투자 범위가 확장되고 환위험 헤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(FOW, 1/17)
- 글로벌 규제당국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CCP와 관련된 마진 개혁 제안(Reuters, 1/17)
- SEC,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SPAC에 대한 규제 강화 예정(Bloomberg, 1/24)
- 금융업계, 최근 발표된 伊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 개정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(Financial Times, 1/20)
- SEC의 국채 중앙 청산이 글로벌 최대 채권시장에 가져올 변화(Bloomberg, 1/22)
- 중국, 자본유출 제한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역외 증권투자 제한(Financial Times, 1/24)
- EU 이사회, ESMA에게 중앙집중식 청산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허용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(Risk, 1/22)
- EU 의회,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mir 3.0 규제 개정안에 CCP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기를 원해(Risk, 1/23)